

“인재양성 매진” 군산대 빛났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4차 재인증 향후 3년간 혜택 받아

군산대학교(총장 나이균)가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4차 재인증 획득에 성공하여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인적자원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보상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인역량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부분의 서면과 현장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증기관은 유효기간 3년으로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의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정립, 직무능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수립,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사운영·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비전달성을 위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서 우수성을 나타냈다.

군산대는 2008년 호남권 최초로 인재개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재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고, 2011년, 2014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4차 재인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10년 가까이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의 모범사례가 있다.

나이균 총장은 “이번 재인증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국립대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에서 2016년 최우수대학, 2017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쾌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앞으로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해룡해룡’ 술 취한 선장 꿈짜마

도 해상, 매년 10여건 적발 군산해경, 10월 한달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 ~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을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10여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해 17일 22급 오징어잡이 어선 선장 A씨(55)가 만취한 채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되는가 하면, 같은 달 3일에는 음주상태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B씨(45)가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운전기 교통계장은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도시의 흉물 ‘노후건물’... 보물로 재탄생

익산 이리신광교회 봉사국 미등록 송내 경로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이리신광교회 사회봉사국은 최근 영등1동 미등록 송내 경로당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에서는 컨테이너 두 동의 내부 단열처리와 도배장판 및 치양공사가 이뤄졌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이를 꼬박 작업해 낡고 오래된 건물을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공사가 끝나자 경로당 어르신들은 “친구가 그리워서 매일같이 10명 남짓이 식사와 여가활동을 함께해 왔는데, 경로당을 깔끔하게 바꿔줘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며 연신 웃음

꽃을 피웠다.

신광교회 오해근 목사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무더위나 추위와 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안심입니다”며 “앞으로도 환경이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명란 영등1동장은 “우리 동에서 가장 열악한 송내 경로당이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돼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신광교회 사회봉사국 집수리사업팀은 올해부터 법적 지원이 미비한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다. 지난 상반기에 미등록 영등1동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으로 세 번째 집수리 사업이 마무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리신광교회 사회봉사국은 휴일도 반납한 채 영등1동 미등록 송내 경로당의 내부 단열처리, 도배장판 및 치양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조성 윤곽

군산시 주민주도 경관협정 체결

국토교통부가 경관협정 활성화에 주목하며 매년 경관협정체결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시 최초로 주민주도 경관협정 체결이 이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5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경관협정운영회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월명동에 위

치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인가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협정 체결식은 시 도시재생대학의 ‘경관협정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선도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직접 회칙과 협정서를 만들고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를 결성해 43명의 주민들 스스로가 시에 인가를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원안결정 됨으로써 지난 14일 경관협정의 최종 인가를 받아 진행하게 됐다.

/군산=김판관 기자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안전한 환경, 주거복지가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가 많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관협정운영회 배학서 회장은 “경관협정체결을 계기로 더 단합하고 활기찬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특히 지역의 유·무형적 고유성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관 기자

연휴기간 120 생활민원실 운영

군산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상황실 운영은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보다 긴 연휴인 만큼 기존보다 하루 연장해 운영될 예정이다.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은 도로, 교통, 청소, 수도, 하수,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2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긴급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등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적기파종, 고품질 보리생산 첫 걸음”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달 10일-말일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이하 농기센터)는 보리의 안전한 월동과 적정한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지역 농민들에게 10월 10일부터 시작해 10월 말까지 파종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보리와 밀은 겨울나기 전 잎이 5~6매가 확보돼야 안전하게 월동하여 생육할 수 있으며, 종자를 너무 일찍 파종하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어린잎이 저온에 노출돼 생육이 늦어지



고 품질이 나빠져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산지역은 10월 31까지 파종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최근 군산시는 몇 년간 벼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고 논이 마르지 않아 보리 파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특히 전년도에는 활썬보리의 경우 파종

면적이 예년의 35% 수준인 950ha에 그쳐 지역 보리재배 농가의 시름이 매우 컸다.

시 농기센터는 보리재배 농민들에게 강우 등으로 벼 수확과 밭질 수거가 늦어져 파종이 늦어질 경우 우선 종자를 파종 후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하고,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 한 계기까지 최대 30%정도 파종량을 비례적으로 늘려 파종하는 것이 수확량 확보에 유리할 것임을 홍보하고 나섰다.

안창호 농기센터소장은 “시에서는 올해 총 4,000ha 보리 파종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 보급종 및 채종포산의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확보했다”며 “시에서는 지리적특산물인 군산원활 쌀보리의 명품 유지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성희롱 예방교육 전개

군산경찰서 최원식 서장이 25일 오전 경찰서 진포마루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60여명의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性)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경찰 중간관리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전환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마련된 지리로, 직원들의 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역할을 제고하고, 평소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수시로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군산=김판관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